

베트남 고교생들, 전북에서 공부한다

전북교육청,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와 협약 유학생 모집·선발 등 협력... 내년 3월 직업계고 입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IED는 베트남 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국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 학생의 해외 유학 지원, 국제협력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 조

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문형심 청의인 재교육과장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 관 탄 빈(PHAN THANH BINH) 부센터장, 외국인 유학생 선도 학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양 기관의 역할 정립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추천 및 선발 △입학 전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 운영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 및 관리에 긴밀

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향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선발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을 운영한 뒤 내년 3월 외국인 유학생 입학 추진할 예정이다.

관 탄 빈 부센터장은 "전북교육청과 고등학생 대상의 유학사업이 매우 기대된다"며 "베트남의 우수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형심 과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전북교육청의 미래 전략"이라며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양국의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고려인·다문화 특화교육 인력양성 '맞손'

전북대 글로벌대학사업추진단,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약... 지역사회 정착 지원 협력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사업추진단(단장 국경수)은 지난 21일 (사)사단법인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KGN, 이사장 채예진)와 고려인 동포 지원 활성화와 및 다문화 특화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전북대 운명숙 대외취업부총장과 국경수 글로벌대학사업추진단장,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채예진 이사장 등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려인 및 다문화 청년교육 지원에 나서고,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입생 모집과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사 운영, 교육과정 개발 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사업추진단은 지난 21일 (사)사단법인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KGN)와 고려인 동포 지원 활성화와 및 다문화 특화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국경수 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려인 청년과 동포들을 위한 대학 연계 한국어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지원과 지역 정주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예진 이사장은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북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도약

IB PYP 취득 호남권 유일 기관 인증... IB 교육 전문가 양성 박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교육 프로그램(IB PYP) 교사 자격증(IBEC)을 취득할 수 있는 호남권의 유일한 기관으로 최종 인증받았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PYP(Primary Years Programme)는 만 3세부터 12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탐구 중심 학습, 비판적 사고, 국제적 소양, 전인 교육을 중점에 뒀다.

이번 인증을 통해 전주교육대학교는 글로벌 학습 기준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선도할 교사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22일 전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2024

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IB 교사 양성 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2025년 2월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평가단의 온라인 심사 방문을 진행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수진의 노력, IB 월드 스쿨과의 협력, IB교육연구센터의 설립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는 6월부터 운영되는 전주교육대학교 IBEC(IB Educator Certificate) 단기 과정(1년)은 IB PYP의 공교육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초등교사의 전문성 함양 방안을 모색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IB 교육 전문

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단기과정을 이수하면 IB 월드 스쿨에서 일할 수 있는 IB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교육대학원 국제교육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면 석사 학위와 함께 IB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인증을 발판 삼아 미래의 학습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 상업계고 학생들 군산에서 실무 역량 겨뤄

도내 9개 특성화고 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제22회 전북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9개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해 지도교사 및 학교 관계자 등 330여 명이 함께했다.

대회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ERP, 비즈니스영어,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세무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등 10개의 실무 경진종목과 창업 동아리 엑스포, 경제골든벨 2개 경연종목으로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각 종목별 고사장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실력을 겨뤘다.

이에 창업실무, 금융실무,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 등 발표형 종목은 팀 또는 개인 단위로 기획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평가받았다.

특히 전국상업경진대회 기준에 부합한 문제 구성과 출제 기준을 적용해 대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ESG 실천과 일회용품 사용 절감 지침까지 포함한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을 실현하고자 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경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는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전북 상업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22일 '2025년 청렴실천 포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청렴이 만드는 변화 신뢰가 쌓이는 미래

전북대, 2025 청렴실천 포어 공모전 시상식 중앙도서관 오세철씨 출품작 '최우수상' 서은주 강사·송영석 직원 등 '우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2일 '2025년 청렴실천 포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73개의 포어가 접수,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중앙도서관 오세철 작이 출품한 '청렴이 만드는 변화, 신뢰가 쌓이는 미래'가 최우수상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영어영문학과 서은주 강사의 '청렴은 나의 가치에 푼다'는 제목의 '청렴의 작은 씨앗, 희망의 큰 나무', 공동실업실습관 안희주 직원의 '청렴! 행동할 때 진짜 가치

가 됩니다.' 식물학과의 양수정 조교의 '부패없는 청렴세상 JENU가 먼저!'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대는 이번 선정작들을 교내 포털과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시하고, 청렴포어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포어 공모전을 계기로 대학 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대학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평생교육 성과 나누고 미래를 잇다

전북 LIFE2.0 사업추진단,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 LIFE2.0 사업추진단(단장 한동승)은 지난 20일 '성과를 나누고 미래를 잇다-LIFE2.0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 LIFE 2.0 사업추진단은 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등 4개 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북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대학 간 학점 교류 체계 구축 △평생교육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등 전북지역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북 LIFE 2.0 사업추진단이 지난 2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



역맞춤형 평생교육 모델 발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LIFE 2.0 사업이 전북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 중심의 공동평생교육 체계 교실(조한나 금마초 교사) 등 공동체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4개 대학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원 탄소중립 실천교육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학교환경교육 배움나눔터 운영... 총 네차례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원들의 환경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학교환경교육 배움나눔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교원들의 환경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추진된다.

첫 번째 연수는 이날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 담당교사, 환경교육 연구회 소속교사, 환경교육학생중심동아리 담당교사, 환경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이어 △27일 학생참여 중심 환경 이

야기(고성원 푸름꿈고 교사) △6월 17일 탄소중립시대 학교환경교육의 실천과제(조성화 환경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6월 28일 지속가능한 삶과 교실(조한나 금마초 교사) 등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환경교육 내용과 실천 전략을 공유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학교 간 배움과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들이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교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